도쿄조직위 “욱일기 응원 허용”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 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직위는 욱일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욱일기 자체는 정치적 주장을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일본 관중이 욱일기를 흔들며 응원을 펼치거나 욱일기 디자인의 유니폼을 만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측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IOC가 지금까지 욱일기를 제재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는 독일 안에서 불법이지만 욱일기는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3일 조직위가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이용해 응원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욱일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에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며 판단 재고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은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사용한 전범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

다저스타디움 파울 보호망 외야로 확장

LA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타디움의 파울 보호망이 외야까지 확장됐다.

다저스 구단은 파울볼과 부러진 배트 등에 맞아 야구를 관전하던 팬이 다치는 일이 늘자 앞서 기존 보호망보다 약 2.4m 올린 높이 10m의 새 보호망을 홈 플레이트 뒤쪽과 양쪽 더그아웃 위에 새로 세웠다. 최근에는 같은 높이의 보호망을 1, 3루 선상을 따라 외야로 확장했다. 이에 다라 다저스타디움을 찾은 팬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야구를 관람하게 됐다.

다저스 최고경영자(CEO)인 스탠 캐스틴은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선수와 팬들과의 협의를 거쳐 파울 보호망을 높이고 또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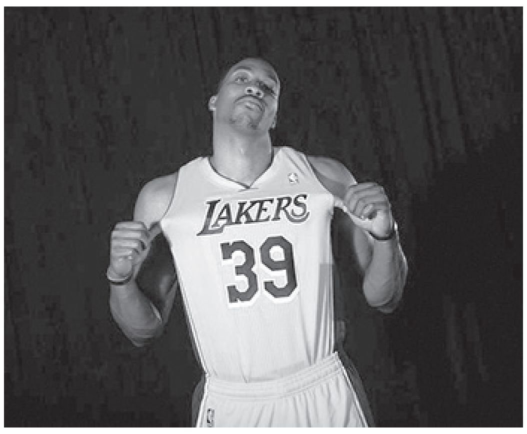
메이저리그에선 파울볼 때문에 관람객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도 예외는 아니다.
6월 2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중 1루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던 젊은 여성이 코디 벨린저의 파울타구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울안전망이 끝나는 더그아웃 가장 자리에서 불과 몇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은 이 여성은 시속 161㎞로 날아오는 파울 타구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파울 볼에 머리를 맞은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LA다저스타디움

파울볼 사고가 증가하자 MLB 사무국은 각 구단에 보호망을 외야로 확장하라고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

하워드, LAL로 컴백 … “오직 승리 생각 뿐”

드와이트하워드(34,211cm·사진)가 레이커스로 컴백했다.



5일 농구전문매체 ‘점프볼’ 에 따르면 하워드는 지난 달 23일 LA 레이커스와 1년 계약에 합의했다. 지난 2012-2013 시즌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바 있는 하워드는 이로써 6년 만의 다시 LA로 돌아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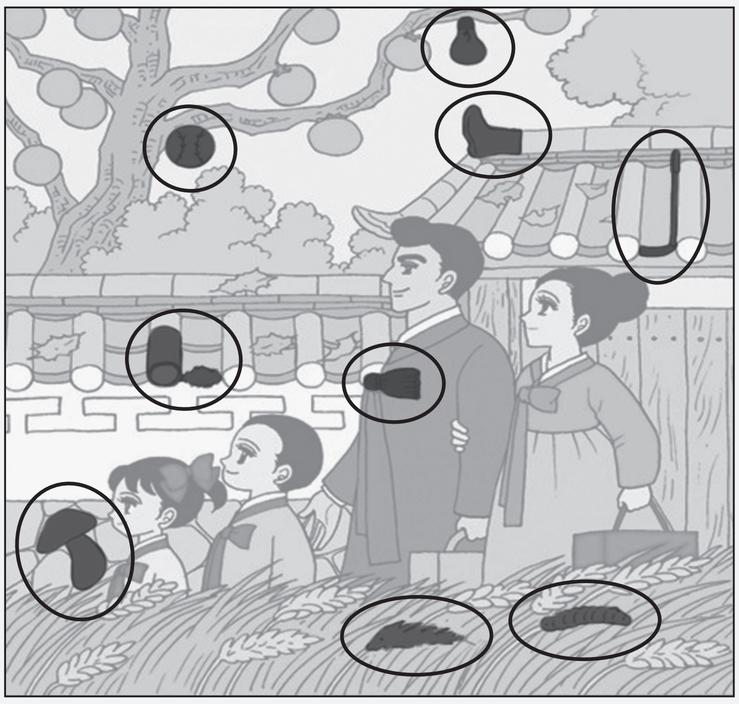
하워드는 5일 ‘클러치포인트’ 와의 인터뷰에서 “이 곳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나는 처음부터 LA라는 도시를 사랑했다.” 며 “내 머릿 속에는 오직 팀이 이기는 생각뿐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며 컴백 소감을 밝혔다.

하워드는 또 “그동안 나는 많은 말들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며 자신의 기록보다 팀 승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햇다.

레이커스는 올 여름 리그 최고 빅맨인 앤써니 데이비스를 영입했다. 하워드가 합류하면서 데이비스는 자신이 선호하는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뛰게 될 전망이다. 하워드 역시 데이비스와 함께 뛰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무기들이 많다. 데이비스와 나는 서로 잘 맞을 것이다. 나는 그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쭉 지켜봐왔다. 그는 굉장한 선수다. 그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된다. 나 또한 내가 리그에서 쌓은 경력들을 토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Since 1994
든든한 길잡이
실속있는 주간정보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가
신문 배달 사원을 모집합니다
- 주 1회(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 Cerritos지역에
신문배달 가능하신 분
- 성실하고 책임감 있으신 분
info@townnewsusa.com 714-530-1367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